

공교육환경과 교육만족도: 강남학부모는 더 행복할까?*

이희철**

구교준***

박차늬****

〈目 次〉

I. 서론: 강남부모 행복 찾기

III. 교육여건과 행복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I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요 약〉

본 연구는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에 대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다른 지역의 부모들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교육 지표를 비교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교육 환경을 바라보았다. 또한 “국민시각에서의 국정재설계” SSK 사업단의 ‘시민의 공적생활수준에 관한 인식 조사’(13.11)’ 결과 및 서울서베이의 ‘공교육환경만족도 조사’(16~17)’를 활용하여 강남 지역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이 실제로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절대적인 여건이 나은 지역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계획이 원하는대로 실현되고 있을 때에도 상대적인 조건까지 충족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러한 결론은 중기적 관점에서의 공교육 설계에 함의를 제공해 준다.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투입되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중기적 관점에서 공교육을 확인하고 적절한 환경개선을 뒷받침 해주는 유다이모닉(eudaimonic)한 교육의 성격을 되찾아 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육공급자와 교육수요자 측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주제어: 행복, 교육, eudaimonic】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 A2924956).

** 제1저자,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교수(dlgclfl@dyu.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jkoo@korea.ac.kr)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chanemi0714@gmail.com)

논문접수일(2020.1.23), 수정일(2020.9.10), 게재확정일(2020.9.17)

I. 서론: 강남부모 행복 찾기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절대적이다. 최근 설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부모의 92.7%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답하였다(한국대학신문, 2015. 5. 29.). 관심이 높은 만큼 자녀의 학업성적은 부모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 결과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따라 엇갈리는 희비를 경험하곤 한다.

우리나라 교육1번지 강남에(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강남의 진학성적이 더 좋고 교육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것이라는 기대는 이 지역에 대한 주거수요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강남의 우월한 교육여건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잘 드러나는데,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의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강남구는 1,319억 원을 지원한 반면 가장 적은 금천구는 105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두 자치구 간의 교육재정 격차는 13배에 이른다(내일신문, 2012. 10. 5.). 최근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10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교육경비보조에 투입하여 25개 구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19억 원 규모의 경비를 책정한 서대문구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내일신문, 2019.10.14.). 교육재정 격차의 결과는 교육 성과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2010년 실시된 전국 초중고 기초학력평가에 의하면 강남 3구의 경우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지만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들은 중하위권에 머물렀으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뉴시스, 2010. 11. 30). 개발한 지 30년 이상 지나 많은 주택의 노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감수하면서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러한 강남과 다른 지역 간의 교육 격차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행복 결정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Furnham & Cheng, 2000; Hartog & Hessel, 1998; Veenhoven, 1996). 그렇다면 자녀 교육이 중요하기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강남에 입성한 부모들은 다른 지역의 부모들보다 더 행복할까? 만약 교육이 행복에 중요한 결정요인이고 강남에서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지역의 부모들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유사하다고 가정할 때, 다른 지역의 부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교육 지표를 비교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교육 환경을 바라볼 것이다. 그 후 “국민시각에서의 국정재설계” SSK 사업단의

‘시민의 공적생활수준에 관한 인식 조사(13.11)’ 결과 및 서울서베이의 공교육환경 만족도 자료(2016~2017)를 활용하여 강남 지역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이 실제로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만 행복의 개념이 워낙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소득, 건강,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등 교육만으로 부모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하위개념으로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행복 결정요인과 교육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선 개인수준에서는 나이, 성별, 성격과 같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유전적 특징에서부터(Lykken, 1999), 소득, 건강, 교육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획득성 특징까지 폭넓은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요인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Easterlin(1974, 1995)을 중심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수준이 되면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Lane, 2000). 이러한 현상은 Easterlin Paradox라고 불리며, 최근 들어 절대소득이 아닌 상대소득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다(Clark, Frijters, & Shields, 2008; Clark & Oswald, 1998; Frank, 2005; Stutzer, 2004).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소득과는 다소 결이 다른 측면에서 해석되는 요인으로 교육을 들 수 있다(Hartog & Hessel, 1998; Michalos, 2008). 소득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상대적 지위의 차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준다. 즉 소득이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교육은 개인별 배움 욕구 충족이라는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과 교육이 가지는 이러한 성격상의 특징은 행복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의 다른 해석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상이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행복을 쾌락이나 심리적 만족감으로 보는 헤도닉(hedonic)한 접근과 개인이 가진 가치나 역량 실현으로 보는 유다이모닉(eudaimonic)한 접근¹⁾이 바로 그것이다(Ryan & Deci, 2001). 전자의 논의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으로 정의하며 따라서 좋은 삶이란 바로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극대화하는 삶이라는 입장이다. 행복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이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공리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으며, 현대 경제학에서 효용이론과 효용극대화 원리로 발전하였다. 또한 심리학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주관적인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개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후자의 논의는 쾌락에 바탕을 둔 헤도닉한 행복을 세속적이고 저차원적이라고 비판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통해 얻는 충만감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다이모닉한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론(virtue theory)에 기반하여, 개인의 욕구 충족이라는 일차원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보다 고차원적인 만족감을 중시한다. 따라서 유다이모닉한 행복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으나 헤도닉한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행복이라고 볼 수 없다.

소득과 교육은 헤도닉한 성격과 유다이모닉한 성격을 대표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헤도닉한 행복감을 느끼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비교를 통한 열망의 형성과 이의 충족 과정을 들 수 있는데(구교준 외, 2014), 소득 중에서도 상대소득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소득의 헤도닉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교육의 경우엔 이와 달리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충족시키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다이모닉한 성격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유다이모닉한 행복의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정의한 바 있는 Nussbaum(2003)은 교육을 삶의 질의 중요분야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2.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교육의 성격 전치

행복의 결정요인의 성격이 헤도닉하나 유다이모닉하나에 따라 그 효과가 짧은 시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소득 증가가 주는 만족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지만 좋은 결혼생활이나 성공적인 학위 취득이 주는 만족감은 상당 기간 지속되

1) 헤도닉(hedonic)과 유다이모닉(eudaimonic)은 하나의 개념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번역하지 않고 한글로 표음화하여 기술함.

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개인 삶의 주요한 행복 결정 요인이 헤도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유다이모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행복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유다이모닉한 성격을 가진 요인도 경우에 따라선 그 성격이 헤도닉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복 요인이 가지는 성격의 전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도 간략히 소개했듯이 교육은 원래 개인이 가지는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아 실현을 위한 통로로서 유다이모닉한 행복의 중요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한 이유에서 유다이모닉한 행복과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가진 역량이론에서도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뤄졌다(Nussbaum, 2003). 자신이 가진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은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이 되면 그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 등 동양권 국가에서 관찰되는 강한 집단주의 성향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구교준 외, 2017). 우선 집단주의 성향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운명에 스스로를 강하게 투영해서 개인의 효용함수 안에 집단 구성원들의 웰빙이 들어오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을 가장 강하게 투영하는 집단을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족 내에서 자녀의 웰빙은 부모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나의 교육만큼 내 자녀의 교육이 행복방정식의 중요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집단주의 성향의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강한 집단주의는 개인의 다름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개인은 끊임없이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교성향으로 연결되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비교성향이 가장 높은 사회에 속한다(Kim and Ohtake, 2014).

집단주의와 연관된 이 두 가지 특징이 결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은 행복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우선 자녀의 교육이 부모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자녀가 교육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가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부모들은 직접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주는 충만감과는(이 부분이 유다이모닉한 행복의 원천임) 별 연관이 없지만, 당산 자녀들이 또래 계층구조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비교성향과 연관되어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에 따라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부모에게 ‘비교를 통한 행복감’으로 변질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즉 교육은 자녀들에게는 직접 배움을 통해, 부모들에게는 자식의 교육 성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성격의 변질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선 헤도닉한 성격이 강한 보석에 대한 소비가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선 유다이모닉한 성격이 더 강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대상으로서 명품보석을 소비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부모나 친구와 같이 의미 있는 관계를 상징화하는 수단으로서(예를 들면 어머니의 결혼반지를 물려받는 경우) 보석을 소비한다(나유리 & 미셸램블린, 2014).

교육의 성격이 유다이모닉한 것에서 헤도닉한 것으로 변질되면 더이상 유다이모닉한 행복 결정요인으로서의 특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즉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교육의 조건이 지속적으로 나아지더라도 이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헤도닉하게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정규교육과 비교하여 유다이모닉한 자아실현의 성격이 보다 강한 취미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Hartog & Hessel, 1998; Michalos, 2008).

한편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개인수준의 연구와 더불어 사회수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진 요인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이다(Dorn, Fischer, Kirchgassner, & Sousa-Poza, 2007; B. Frey & Stutzer, 2000). 민주주의와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국가나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투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이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사회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유다이모닉한 성격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들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만족도의 제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수준의 행복결정 요인 연구로는 정치적 안정(Bruno Frey & Stutzer, 2002; Inglehart, 2009), 사회적 신뢰(Fukuyama, 1995; Putnam, 1993) 등을 들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 중 서울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90년대 르포 형식의 강남교육열에 대한 문제제기(김은남, 1994; 이한기; 1997), 강남 8학군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성기선, 2004)에서부터 거주지 효과와 거주집단의 격차가 가져오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최은영, 2004; 윤형호 외, 2008, 홍선호 외, 2011), 교육요인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수연, 2006), 재정지원 격차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본 연구(이미영, 2012) 등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강남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문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회적 출세나 성공을 위한 인적·문화적·사회적 자본이 집중된 이상향으로서의 강남에 당연스레 나타나는 결과물로서의 교육우위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박배균·황진태, 2017),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강남이라는 특징적 공간의 형성과정에서 따라온 교육효과임을 주장하는 연구(Yang, 2018; Bae & Joo, 2020)등 역사적 맥락에서 강남이라는 지역의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격차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 강남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에 따르는 교육의 특징적 현상이라는 설명적 연구는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왔지만, 정작 교육에 대한 제요소의 격차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실시한 2001, 2006년도 학생,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연구의 경우에도 지역별 교육현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어 정책개발 자료로서의 목적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주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2018년부터 구별 공교육 환경 만족도 자료를 제외함에 따라 더 이상은 공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공교육 만족도에 대한 통시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여건과 행복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단순히 지역 간 격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시정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다. 강남과 비강남 간 교육여건에 대한 현상을 재정 투입, 학습 여건, 성과 측면으로 나누어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한 후, 그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을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설계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Ⅲ. 교육여건과 행복

1. 현상의 제시: 강남(강남, 서초, 송파), 비강남 간 객관적 교육 지표의 차이

1) 재정투입 측면

우선적으로 서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재정 투입 정도를 살펴보고자 2000년대부터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액을 살펴보았다. 본

예산은 조례로 규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지원규모의 범위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구청장의 의지가 강하다면 보조금의 액수를 늘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미영, 2012).

〈표 1〉의 보조금 지원 초기의 강남지역을 확인해보면 서울시 전체 지원규모 대비 60%에 육박하는 37억 원을 투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점차적으로 전체 지원규모 대비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 금액만큼은 절대적으로 많아 2015년 기준 투입 누적금액이 약 3,221억 원에 이른다. 총 25개 구에 투입된 비용이 1조 4천억 원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강남지역의 평균 지원금액(1,073억)은 각 자치구 평균지원금액(약 560억)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 학습여건 측면 내용 중 〈표 3〉에 제시된 초중고 학생수의 절대수치와 비교해 보아도 평균지원금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 학생 중 강남지역학생의 비중이 '08년 기준 약 16%(221,133/1,361,007명), '18년 기준 19%(171,959/900,684명)로 증가하여 예전보다는 평균지원금액 비중차가 감소하였다고 하여도, 아직도 학생 절대수 비중을 상회하는 지원이 강남지역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교육경비보조금²⁾ 편성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시	6,210	14,734	22,128	23,965	39,669	35,491	58,397	76,408
비강남	2,507	9,256	15,868	17,570	28,921	26,475	43,562	56,741
강남	3,703	5,478	6,260	6,395	10,748	9,016	14,835	19,667
강남비중	59.6%	37.2%	28.3%	26.7%	27.1%	25.4%	25.4%	25.7%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서울시	143,632	151,835	165,393	164,941	176,364	175,211	172,426	1,426,804
비강남	107,024	117,441	134,037	127,824	143,092	138,925	135,456	1,104,669
강남	36,608	34,394	31,356	37,115	33,272	36,286	36,970	322,103
강남비중	25.5%	22.7%	19.0%	22.5%	18.8%	20.7%	21.4%	22.6%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정보공개 자료 재편집

※강남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의미하며 비강남은 나머지 22개 구를 의미함

본 지원금액의 사용 범위는 각주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09-11년 교육청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②-2 학교 시설(급식시설 설비, PC교체 등) 환경 개선사업과 ③교육과정 운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경비이다. 사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21., 타법개정] 제 2조에 열거되어 있다. ①학교의 급식 시설·설비사업 ②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②-2.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③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⑤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영지원(지역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 학습능력 신장 등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사업에 거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이미영, 2012), 이는 바로 교육의 질로 직결 될 수 있다.

2) 학습여건 측면: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인원수 등

학습여건 측면을 살펴보면 있어 학급규모, 효과 등에 대해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으나, 한국교육개발원(2011)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학급규모가 학생들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정책적 수준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김달효, 2013 재인용).

우리나라도 학령인구의 감소와 병행된 정책적 노력 및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있어왔고, 이는 <표 2>, <표 3>과 같은 개선효과를 낳았다. 2018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강남, 비강남 모두 OECD 평균(2016년 기준, 초등(16.5) 중등(14.7) 고등(13.8))에 근접한 수치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2016년 기준, 초등(23.2) 중등(28.4))에 근접하거나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지역 간 비교적 입장에서 표를 살펴보면,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에만큼은 절대적인 수치에서 비강남이 조금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원의 절대수(강남 초등학교 교원 23%증가 대비 비강남 교원 1% 감소) 및 학생의 절대수(강남 초등학교 학생 14% 감소 대비 비강남 초등학교 학생 36% 감소)를 확인해 보면, 강남지역의 경우 학령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교원의 수가 증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감소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요자들의 강남 선호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으며, 학습여건의 차이가 강남/비강남 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표 2〉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총 교사수 비교

단위: 명

구분	2008년		2018년		증감현황	
	강남	비강남	강남	비강남	강남	비강남
초등학교	22.4	22.0	15.7	14.2	-6.7	-7.8
중학교	20.0	18.8	12.9	11.7	-7.1	-7.1
고등학교	16.6	16.1	12.4	11.7	-4.2	-4.5
교원수	2008년		2018년		증감비율(%)	
	강남	비강남	강남	비강남	강남	비강남
초등학교	4,154	24,237	5,112	23,880	23%	-1%
중학교	3,173	15,865	3,366	14,377	6%	-9%
고등학교	3,935	18,380	3,987	17,897	1%	-3%

※서울시 교육통계 08년, 18년 자료 재편집 (증감비율=(2018년-2008년)/2008년)

〈표 3〉 학급당 인원수 및 총 학생수 비교

단위: 명

구분	2008년		2018년		증감현황	
	강남	비강남	강남	비강남	강남	비강남
초등학교	31.3	29.8	25.0	22.2	-6.3	-7.6
중학교	35.9	34.0	26.2	23.6	-9.7	-10.4
고등학교	34.8	34.3	28.0	26.5	-6.7	-7.8
학생수	2008년		2018년		증감비율(%)	
	강남	비강남	강남	비강남	강남	비강남
초등학교	92,741	540,745	79,408	345,392	-14%	-36%
중학교	63,074	302,505	43,372	172,958	-31%	-43%
고등학교	65,318	296,624	49,179	210,375	-25%	-29%

※서울시 교육통계 08년, 18년 자료 재편집 (증감비율=(2018년-2008년)/2008년)

또한, 절대적인 수준 이상의 양질의 학습여건 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순전입자 수를 제시 할 수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2013년 비강남 지역은 모두 (-)인 전입자수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강남지역은 모두 (+)인 전입자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더 이상 학년별 세부 전입 전출자의 수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7년의 초중고 전출입 현황 자료와 비교한 〈표 5〉를 보면 비록 강남 지역에서도 예전만큼 순전입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여전히 비강남 지역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제도 개편 등의 정책적 영향으로 보이는 지난 4년 새 경향성의 변화(강남지역 고등학교 순전입자가 (-)로 돌아섬)이다. 그러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비강남 지역에 비해 순전입자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은 여전하며, 현재까지도 강남으로의 전입경향성은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학령인구(10-14세)의 높은 강남 전입인구를 제시한 최은영(2004)의 논문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4〉 서울지역 전입자수-전출자수 현황(2013년)

단위: 명

구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서울	-634	-661	-560	-536	-330	-52	-150	-189	89	-173	-37	-7
비강남	-701	-878	-941	-915	-713	-443	-354	-340	-60	-177	-54	-12
강남	67	217	381	379	383	391	204	151	149	4	17	5

※서울시 교육통계 표 III-24 재편집

〈표 5〉 서울지역 전입자수-전출자수 현황(2013, 2017년 비교)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서울	-2,773	-2,506	-250	-717	-217	-86
비강남	-4,591	-3,840	-754	-781	-243	-85
강남	1,818	1,334	504	64	26	-1

※서울시 교육통계 자료 재편집

3) 성과 측면: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률

교육지표의 성과측면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대학진학률을 살펴본다. 먼저 〈표 6〉에서 수치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 학교의 '보통학력이상'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표가 '보통학력이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강남이나 비강남 지역 모두 국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만, 주요 교과목에서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적게는 5.9%p부터 많게는 14.3%p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은 학업 수준이 '보통'보다 높은 학생들이 강남 지역에 몰려들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표 6〉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수준('보통학력이상' 비율) 비교 (2016년)

(단위: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서울	88.7	70.4	75.2	78.3	72.0	80.6
강남	93.6	81.9	87.1	83.2	77.3	87.4
비강남	87.7	68.1	72.8	77.3	70.9	79.1
격차	5.9	13.8	14.3	5.9	6.4	8.3

※출처: 에듀데이터서비스

〈표 7〉의 진학률 추이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은 '06년까지 70%대의 진학률을 유지하던 강남지역이 '07년부터 비강남 지역에 역전당하며 현재는 채 50%가 되지 않는 정도의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더불어 강남지역 졸업자 중 진학과 취업 등 결정되지 않은 졸업생의 비중이 18년 현재 약 45%(8,637/19,004)(비강남 지역 약 33%(77,847/26,103))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세계일보(2015.6.24.)에서 나타난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 혹은 'N

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로학원의 관계자는 '07년부터 높아진 수시비중에 따라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강남권이 내신에서 불리해졌고, 다양한 실적에서도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밀려 목표대학에 가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고도 하였다. 강남지역 고등학생들에게는 정부정책 측면의 '부작용 아닌 부작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정책적으로 불리함을 무릅쓰고라도 강남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표 7〉 진학률 추이 비교

단위: 명

년도	구분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기타
2004	강남	23,284	17,472	75.0%	1,237	4,575
	비강남	101,523	71,152	70.1%	12,473	17,898
2005	강남	22,575	16,770	74.3%	1,206	4,599
	비강남	95,620	69,687	72.9%	8,888	17,045
2006	강남	21,794	15,319	70.3%	746	5,729
	비강남	93,987	64,977	69.1%	7,065	21,945
2007	강남	21,840	14,699	67.3%	629	6,512
	비강남	93,991	64,152	68.3%	5,707	24,132
2008	강남	20,926	14,129	67.5%	624	6,173
	비강남	93,288	66,182	70.9%	5,687	21,419
2009	강남	20,226	12,163	60.1%	619	7,444
	비강남	90,703	60,220	66.4%	4,778	25,705
2010	강남	22,468	12,949	57.6%	693	8,826
	비강남	99,785	63,859	64.0%	4,506	31,420
2011	강남	22,985	11,493	50.0%	830	10,662
	비강남	98,961	57,064	57.7%	5,157	36,740
2012	강남	22,643	11,358	50.2%	1,072	10,213
	비강남	95,039	54,274	57.1%	7,825	32,940
2013	강남	22,257	11,277	50.7%	1,251	9,729
	비강남	93,631	53,180	56.8%	8,401	32,050
2014	강남	21,615	11,271	52.1%	1,252	9,092
	비강남	91,781	52,888	57.6%	9,086	29,807
2015	강남	20,951	11,013	52.6%	1,386	8,552
	비강남	87,718	50,239	57.3%	8,825	28,654
2016	강남	20,266	10,676	52.7%	1,270	8,320
	비강남	86,139	48,733	56.6%	8,799	28,607
2017	강남	19,769	10,069	50.9%	1,281	8,419
	비강남	80,712	45,012	55.8%	8,904	26,796
2018	강남	19,004	9,194	48.4%	1,173	8,637
	비강남	77,847	43,964	56.5%	7,780	26,103

※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정보공개 자료 재편집

2. 현상의 평가 및 만족도 검증

1) 분석 대상 및 방법

앞서 살펴본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교육 지표는 투입예산 및 학업성취도 등 결정적인 객관적 교육지표에 있어 강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당 지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공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II장에서 언급한 교육 관련 행복에 대한 설명을 공교육서비스 만족도로 치환하여 구체화하기는 역부족이다. 다만,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개념으로서 교육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지적 측면)는 실제 개인이 느끼는 교육 관련 행복과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 하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자료는 “국민시각에서의 국정재설계” SSK 사업단의 ‘시민의 공적생활수준에 관한 인식 조사(13.11)’ 결과이며, 총 2,065명의 응답자 중 서울을 거주지로 두고 자녀가 있는 부모를 추출하여 응답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인원 총282명(서울지역 비강남 거주자 223명,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거주자 59명)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부록 1>의 기초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 성별, 소득, 학력이 모두 고르게 분포되었다.³⁾ 강남 비강남 집단 간 평균비교 분석은 SPSS 21.0을 활용하였다.

2) 분석 결과

<부록 1>에서 ‘시민의 공적생활수준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 중 본 분석에 포함된 설문문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집단 간 평균비교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공교육 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 평균차 비교표

설문항목	강남	비강남	t	유의확률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	3.34	2.95	3.065	.002**
서비스의 질	3.36	2.91	3.916	.000***
부모만족도	4.69	4.66	.153	.878

*p<0.05, **p<0.01, ***p<0.001

3) 공교육의 절대적 여건 변화에 10년 정도의 시계열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공교육을 받는 자녀가 아닌 자녀 있는 응답자로 연구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좀 더 종단적인 공교육 서비스 만족도의 답을 얻고자 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초중고 공교육서비스 제공의 충분성과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강남지역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공교육서비스의 양과 질이 비강남 지역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수치가 있어서도 강남지역의 경우 보통과 약간 높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강남 지역의 경우는 보통에 조금 못미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부모의 만족도에서는 강남 비강남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9점 척도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보통인 5에서 약간 낮은 4.6 대의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투입이 높으면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상식 및 기존의 교육 분야 연구에서 주장된 객관적 교육조건(교사의 지원)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사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김효정·이길재·이정미, 2013)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제도적인 요소들의 전형적인 현상이 일정 정도에 다다르면 아무리 투입이 증가하여도 만족도는 포화(saturation)되어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교육에서 더이상 유다이모닉한 행복 결정요인으로서의 특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객관적 공교육의 조건이 지속적으로 나아지더라도 이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공교육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표 9〉 공교육환경 만족도 평균차 비교표

연도	강남	비강남	t	유의확률
2016	5.443	5.437	0.059	0.957
2017	5.713	5.348	1.938	0.152

*p(0.05), **p(0.01), ***p(0.001)

〈표 9〉는 비교적 최근에 공개된 서울서베이의 각 자치구별 공교육환경 만족도 데이터를 활용한 평균차 비교표이다. 17년의 경우에는 강남 비강남 간 만족도 평균이 약 0.36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마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은 추론에 더욱 힘을 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많고 인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검증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만족도 차이없음에 대한 맥락적 분석

(1) 개인수준의 요인

수시모집인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대학입시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고교 간 학력 차를 인정해 대입에 반영해야한다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서울 강남 고교생 찬성비율이 절반에 달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은주, 2006). 이러한 현상은 수시모집 증가로 인한 우수대학 진학 불가라는 상대적 조건의 악화가 불리울 강남지역 만족도 정체를 예견한 것이라고 추론가능하다. 절대적 교육여건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공교육의 마지막 관문인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을 때, 공교육서비스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도 낮아질 수 밖에 없고 만족도가 정체의 일로를 걷게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 사회 제도 요인

‘시민의 공적생활수준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공교육서비스에 대해 부패만연 정도,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존재 등 사회 수준에서의 불만족 요인을 확인하는 설문들이 있었으나 강남 비강남 간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공교육서비스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배제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공교육서비스의 정책결정 집행과정 배제정도 평균차 비교표

설문항목	강남	비강남	t	유의확률
정책결정 집행 과정 국민배제정도	2.93	2.69	1.986	.048*

*p<0.05, **p<0.01, ***p<0.001

우선 강남 비강남 모두 5점척도에서 3점이하인 만족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경향 자체는 공교육이 원하는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을 때의 낮은 기대감은 공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강남이 비강남 지역에 비해 배제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교육여건 및 질적 개선에의 예산투입 등에서 학부모가 원하는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책에의 관여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교육에 대한 갈등은 사회제도적인 의견표출의 한계와 더불어 공교육 만족도를 낮추는 정제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육 기회 및 교육 환경 요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7 한국부자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의 거주지역을 선택한 이유로 강남3구의 경우 ‘좋은 교육환경’이 36.7%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공교육 여건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누리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측정될 수 없는 요소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던 박배균·황진태(2017)는 강남주민의 만족감을 결국 ‘구별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사교육 환경에 대해 사회적 출세나 성공을 위한 인적·문화적·사회적 자본이 집중된 이상향적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학벌주의가 미치는 공교육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사교육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 영향(강인원·전성일, 2003) 등을 감안하여, 교육에 있어 사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환경이나 교육기회에서 오는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또다른 논의로 풀어가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에 대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다른 지역의 부모들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객관적 교육여건의 실증을 위해 문헌 및 자료연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에서 서울지역을 추출하여 강남 및 비강남으로 구분,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절대적인 여건이 나은 지역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계획이 원하는대로 실현되고 있을 때에도 상대적인 조건까지 충족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즉, 헤도닉한 요소들의 전형적인 현상이 일정정도에 다 다르다면 아무리 투입이 증가하여도 만족도는 포화되어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보아 공교육에서 더이상 유다이모닉한 행복 결정요인으로서의 특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추가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족도 차이없음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수준 요인, 사회제도 요인, 교육기회 및 교육환경 요인 측면에서 정체요인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의 결과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공교육 설계에 함의를 제공해 준다.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투입되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중기적 관점에서 공교육을 확인하고 적절한 환경개선을 뒷받침 해주는 유다이모닉한 교육의 성격을 되찾아 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육공급자와 교육수요자 측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문제점 발견, 확인을 위한 기초 연구에 다름아니라는 점이 근본적 한계이다. 학부모 교육만족도라는 개념만을 생각해 보아도 타인과의 비교나 과시를 위한 만족감, 자녀에 대한 기대치 만족, 좋은 대학 진학 등에 관련되는 성취에 따른 만족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교한 설계를 통한 공교육 관련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르면 중기적 공교육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2차 설문조사를 통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Bae, Yooil, & Yu-Min Joo (2020). The Making of Gangnam: Social Construction and Identity of Urban Place in South Korea. *Urban Affairs Review*, 56(3): 726-757.
- Blanchflower, David G., & Oswald, Andrew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1359-1386.
- Clark, A.,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Clark, A., & Oswald, A. (1998). Comparison-concave utility and following behaviour in social and economic sett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0(1): 133-155.
- Dorn, D., Fischer, J., Kirchgassner, G., & Sousa-Poza, 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3): 505-526.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 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 Easterlin, R.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1): 35-47.
- Frank, R. (2005). Does absolute income matter? In L. Bruni & P. L. Porta (eds.),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 Press.
- Frey, B., & Stutzer, A. (2000). Happiness prospers in democrac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79-102.
- Frey, B., &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Furnham, A., & Cheng, H. (2000). Lay theorie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227-246.
- Hartog, J., & Hessel, O. (1998). Health, wealth and happiness: Why pursue a higher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7(3): 245-256.
- Inglehart, R. (2009). Democracy and happiness: What causes what? In A. Dutt, K. & B. Radcliff (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Toward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256. Northampton, MA: Edward Elga.
- Kim, H., & Ohtake, F. (2014). Status race and happiness: What experimental surveys tell us. *Policy Study* 2014-0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Lane, R. (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the Market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ykken, D. (1999). *Happiness*. New York: St. Martin's Griffin.
- Michalos, A. (2008). Education, happiness an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3): 347-366.
- Nussbaum, M.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9(2-3): 33-59.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Stutzer, A.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4(1): 89-109.
- Veenhoven, R. (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1): 1-46.
- Yang, M., (2018). *From Miracle to Mirage: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Korean Middle*

Class, 1960-2015. Cornell University Press.

- 강인원·전성일. (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4(1): 141-157.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28(2): 317-339.
- _____ . (2017). 행복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핀란드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6(2): 179-215.
- 김달효. (2013). 학급규모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교육문화연구」, 19(1): 5-27.
- 김은남. (1994). 중병걸린 서울 강남 엄마들. 「한국논단」, 57: 137-144.
- 김효정·이길재·이정미. (2013). 학교 구성원별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비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1): 183-209.
- 나유리·미셸렘블린. (2014). 「핀란드 슬로우 라이프」. 서울: 미래의 창.
- 박배균·황진태(편).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서울: 동녘.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2014 서울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 성기선. (2004). 강남 8학군, 정말 교육효과 있나?. 「교육비평」, (15): 188-210.
- 정수연. (2006). 교육요인이 서울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2): 153-166.
- 이미영. (2012).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운용 사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6). 고교등급제, 서울 강남만 '찬성' 나머지 전국은 '반대'. 「중등우리교육」, 통권: 108.
- 이한기. (1997). 교육특별시, 강남 8학군. 「중등 우리교육」, 10월호: 64-67.
- 최은영. (2004). 거주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교육환경의 차별화: 강남구와 광진구를 사례로. 「도시연구」, 9: .66-85.
- 한국교육행정학회. (2001). 2001년도 학생,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연구. 「교육정책연구」, 2001-10.
- 홍선호·이완기·김진석·김태은. (2011).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 진단과 대책. 「한국초등교육」 22(3): 213-230.
- KB금융지주. (2017). 2017 한국부자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신문기사〉

- 이정우. “‘꼴찌인 듯 꼴찌아닌’ 강남 대학진학률”, 세계일보, 2015. 6. 24.
- 송보배. “부모 학력 높을수록 교육열 높아”, 한국대학신문, 2015. 5. 29.
- 장세풍. “서울 강남·북 교육여건 격차 여전”, 내일신문, 2012. 10. 5.
- 이현주. “서울 강남·북 교육격차 여전...강남 영어 ‘툭’”, 뉴시스, 2010. 11. 30.
- 김진명. “서울 자치구 교육경비보조 제각각”, 내일신문, 2019. 10. 14.

〈홈페이지〉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11/10)

에듀데이터서비스, <http://edss.moe.go.kr/index.jsp>, (2019/11/10)

국민행정SSK연구단 홈페이지 설문데이터,

http://redesign-gov.or.kr/main/ko/sub02_02_2.html?xid=12

〈부록 1〉

1. 시민의 공적생활수준에 관한 인식 조사 기초통계

구분		지역		전체
		기타구	강남서초송파	
성별	남성	107	26	133
	여성	116	33	149
전체		223	59	282
연령별	20-29	8	0	8
	30-39	44	12	56
	40-49	60	19	79
	50-59	69	17	86
	60-69	42	11	53
전체		223	59	282
소득별	200미만	11	1	12
	300미만	27	12	39
	400미만	40	6	46
	500미만	60	18	78
	600미만	35	7	42
	700미만	16	2	18
	800미만	17	3	20
	900미만	6	3	9
전체		223	59	282
학력별	고졸이하	59	11	70
	대학재학	3	2	5
	대학졸업	144	36	180
	대학원 재학	17	10	27
전체		223	59	282

2. 활용한 설문지 내용

-선생님은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충분히 제공된다**고 느끼십니까?

초중고등학생 교육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선생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초중고등학생 교육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선생님이 **개인생활에서 느끼는 바, 초중고등학생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알지 못함			
1	2	3	4	5	6	7	8	9	

ABSTRACT

Public Education Environment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Are Gangnam Parents Happier?

Hee Chul Lee, Jun Koo & Cha Neum Park

This study examines par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s education. It was assumed that parents' satisfaction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objective quality of education provided by local schools. To explore the hypothesis, key measures that indicate the quality of education were compared north and south of the Han River.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of parents with their children's education was also analyzed in these areas. Contrary to popular belief, it was found that the absolute quality of education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determinant of a parent's level of satisfaction. Although the inherently eudaimonic nature of education underscores absolute positions, the nature of education in Korea may be distorted reflecting more hedonic characteristics, in which relative positions matter. This finding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local education policy that focuses mostly on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It is also important to revitalize the eudaimonic nature of education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n public education.

【Keywords: Happiness, Education, Eudaimonic】